

스포츠 포교로 지역사회 돕는다

'달빛고운절 월봉사 축구단' 교리공부·봉사도 활발

스포츠로 울산지역 포교에 앞장 서고 있는 울산 화정동 월봉사(주지 오심)가 축구단을 창단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어 화제다.

울산 월봉사는 2012년 월봉사 사프니스 야구단에 이어 올해 5월 '달빛고운절 월봉사 축구단(단장 오심)'을 정식 창단하고 동구청 및 울산해안경찰서와의 첫 경기를 가졌다. 월봉사 축구단은 축구연습 뿐만 아니라 불교 교리 공부, 자원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월봉사 축구단 회원은 35명으로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대가 다양하다. 또한 주지 오심 스님을 포함한 총 3명의 스님이 선수로 활약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들은 매주 수요일 저녁 월봉사 근처 울산 과학대학교 축구 경기장에서 연습한다.

더불어 월봉사 사프니스 야구단과 함께 월봉사 대운동장에서 매월 첫째 주 목요일 불교 교리 수업을 듣는다. 또한 매월 첫째 주 일요일에는 울산시립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소외된 어르신들에게 말벗이 되어주고 있으며 점차 대외적인 봉사활동을 늘려갈 계획이다.

달빛 고운절 월봉사 축구단은 주지 오심 스님의 스포츠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시작됐다. 주지 오심 스님과 홍승표 사무국장은 2004년부터 울산지역 내 조기축구모임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꾸준한 스포츠 교류

를 이어왔다. 그러다 2012년 울산 동구축구연합회와 함께 봉축기념 '제1회 월봉사 주지배 축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축구를 활용한 스포츠 포교의 첫 문을 열었다.

매년 대회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울산지역 내 조기축구회원 1200여 명이 참가하고 있으며 사찰이 스포츠 대회의 중심이 된다는 사실은 울산지역에 큰 이슈가 됐다.

주지 오심 스님은 "스포츠에 열광하는 사람들을 보고 사찰 내 월봉사 축구단을 창단하고 새로운 회원들

2012년 주지배 축구대회 개최

20대부터 50대까지 회원 다양

울산노인요양원 방문 봉사도

모집해보자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사찰 스포츠단은 남성 신도들에게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판단했다"며 취지를 설명한다.

스님은 사찰 특성상 여성 신도들이 많고 남성 인력이 부족하다고 여겨 남성 신도들이 자연스럽게 사찰을 드나들 수 있도록 달빛고운절 월봉사 축구단을 창단한 것이다. 축구단의 가입 조건도 '적극적인 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단순히 축구를 좋아해서 오는 것보다 사찰



울산 월봉사 축구단은 매주 수요일 저녁 울산과학대에서 연습을 갖는다. 이들은 축구 뿐만 아니라 소외어웃 돕기 교리공부 등도 최선을 다해 주목된다.

행사 및 대외적인 사회활동에도 참여해 궁극적으로 사회에 회향하는 것이 축구단의 창립 이유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급작스럽게 내린 폭우로 경내가 어수선했던 주지 오심 스님의 원력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축구단의 장점을 꼽았다.

한편 달빛고운절 월봉사 축구단은 올해 연말까지 생활체육축구연합회 등록을 완료하고 울산지역부터 전국적인 대회까지 활발히 출전해 불교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황기를 축구 감독은 "스님이 일반

재가자와 함께 맘 홀리며 스포츠를 즐기지 못하는 스포츠를 통해 장벽이 허물어지는 것 같다. 스님들과 일반인들이 화합하는 모습은 보기만 해도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한다. 또한 불자들뿐만 아니라 비불자들에게도 불교를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축구단에 대한 주지 오심 스님의 원력과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축구단의 장점을 꼽았다.

한편 달빛고운절 월봉사 축구단은 올해 연말까지 생활체육축구연합회 등록을 완료하고 울산지역부터 전국적인 대회까지 활발히 출전해 불교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김나영 객원기자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 울산 선포식

9월 21일 종하체육관서 전국 100만명 서명운동도



달라이라마방한추진위원회는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9월 21일 선포식을 가졌다.

세계평화와 비폭력의 상징인 달라이라마 방한을 촉구하는 법회와 서명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9월 21일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위원장 금강)는 울산 종하체육관에서 지역 최초로 선포식을 가지고 달라이라마 방한 성사의 미와 이유를 공식적으로 알렸다. 선포식은 달라이라마 일본 법회 동영상을 시청, 인사말, 울산지역 결의문 낭독, 서명지 봉헌 등으로 달라이라마 방한을 결의하는 순서들로 진행됐다.

이날 선포식에 참가한 울산불교종단연합회장 덕진 스님은 "한국불교도 국민과 세계를 위해 자비와 평화를 보여줘야 한다. 불교계의 세계지도자를 모시는 일은 여러분의 간절한 발원으로 이뤄지므로 여러분의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다. 이어 추진위원장 금강 스님은 달라이라마 방한 취지문 낭독에 이어 "2000년 및 2005년도에 방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했으나 성사되지 못하면서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방한에 대해 회의적인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하나 이러한 아픔과 상관없이 존자님을 모실 수 있다는 마음만 있으면 내후년에 기필코 성사되리라 생각한다. 불교인구가 많은 울산에서 스님들과 신도님들의 원력이 세계로 나아가길 희망한다"고 격려했다.

울산지역결의문에서 울산광역시

신도회 대표들은 "우리 사회는 공생, 공존을 말하지만 국가와 국가사이, 개인과 개인 사이, 사람과 자연 사이에 서로 이기려고만 하는 갈등이 존재한다. 우리 모두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달라이라마 존자님의 한국방문을 희망한다"며 선포식에 참석한 이들과 결의문을 낭독했다. 한편 달라이라마 방한추진위원회는 울산지역을 시작으로 부산, 대구, 광주 등 주요 도시의 각 사찰 등에서 달라이라마 방한을 위한 100만 명 서명을 추진한다.

김나영 객원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팔공산 승시축제'

10월 1일~6일 대구 동화사 일대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초까지 이어온 스님들의 물물교환 장터를 재현한 제5회 팔공산 승시축제가 10월 1일~6일 동화사와 팔공산 일원에서 열린다. 이번 축제에서는 불교문화행사, 경연대회, 문화공연, 장터마당, 전시마당, 체험마당 등 다양한 코너가 마련된다.

스님들이 거래하는 시장이라는 독특한 역사적 소재를 재현한 승시는 스님들이 필요한 물자를 조달하고 사찰에서 생산한 물자를 유통시

키는 시장을 일컫는다. 특히, 올해는 동화사와 대구불교총연합회, 대구불교종단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면서 지역 행사로 거듭나 눈길을 끈다.

팔공산승시축제봉행위원회는 "스님들의 시장이라는 '승시'의 독특한 역사적 소재를 재현, 사찰이 갖는 문화와 시장이 가지는 교류를 통해 우리의 잊혀진 전통문화유산상을 발굴하고자 한다. 앞으로 '승시'를 지역 문화관광의 킬러콘텐츠로 개발하여 지역의 특화된 콘텐츠로 활



성화시킬 것'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이에 위원회는 △10만 송이 국화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국화 축제를

동화사 일원에서 △중고물품을 물물교환하는 '승시나눔장터' △스님이 직접 요리해 판매하며 수입금은 교도소 무료급식소 등 소외어웃을 위해 사용될 '착한 스님 짜장' △범용 종근 스님의 희망나눔 달마선묵화 초대전 등이 열릴 예정이다. (053)982-0101 정혜숙 기자

"기장군 수해 주민들에게 힘 보태고 싶어요"

기장군불교연합회 성금 3천2백만원 전달

부산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정오)와 기장군불교연합회(회장 이재순)가 기장 수해지역 복구를 위한 성금 3천2백만원을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전달했다.

9월 18일 군수실에서 전달식을 가진 기장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과 청량사 주지 보혜 스님 그리고 백담사 조실 해월 스님은 기장 사찰 신도들과 함께 군청을 방문해 수해 복구에 힘쓰고 있는 기장 군수와 군청 직원들을 격려했다.

성금 3천 2백만원은 기장군불교연합회와 신도회, 장안사, 해평사, 안적사, 보림사, 석탑사, 약수사, 청량사, 고불사 등 기장 내에 있는

사찰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은 것이다.

이 사찰들은 지난 8월에 내린 폭우로 인해 대부분 피해를 입은 도량이지만 피해가 더 큰 주민들을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아 이번 전달식을 진행하게 됐다.

또한 성금 3,200만 원의 금액은 관세음보살 32응신(應身)을 뜻하는 것으로 하루 빨리 주민들의 수해가 복구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기장군불교연합회장 정오 스님은 "기장 내 사찰피해가 많지만 종교인으로서 지역에 도움이 되고자 각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이 마음을 냈다. 우리 사찰이 어려워면 일반 주민들



기장군불교연합회신도회는 기장군수에게 수해민을 위한 기금을 전달했다.

이 더욱더 어려워니 함께 도와야겠다는 마음을 냈다"며 성금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백담사는 기장군불교연합회의 성금전달에 앞서 별도로 천만 원을 기부해 주민들의 수해복구에 뜻을 같이했다.

김나영 객원기자

제6회 음식경연 및 사찰음식 전시

거제 금강사 10월 19일

경남 거제 금강사가 10월 19일 '제 6회 세계 여러나라 음식경연 및 사찰음식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는 다문화 가족 및 일반 시민, 외국이주민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행사로는 세계여러나라 음식경연, 사찰음식전시, 경연 음식시상, 체험마당, 축하공연, 행운권 추첨 등이 열린다. 금강사는 "우리 고유의 맛과 수행 정신이 담긴 사찰음식은 물론 세계 여러 나라 음식 문화와의 교류를 통해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라며 취지를 전했다. (055)636-8634 정혜숙 기자

"법조인 경험 살려 투명한 운영에 진력하겠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신임 이사장에 김백영

재단법인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회장 공병수)가 신임 이사장에 김백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는 8월 21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백영 변호사를 새로운 이사장으로 확정했으며 9월 18일 부산불교신도회 법계정사에서 취임식을 가졌다.

김백영 이사장은 "신도 중심의 부산시불교신도회가 앞으로는 재정상

태 공개를 통해 투명한 운영에 힘쓸 것이며 불평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단체로 거듭날 것이다. 또한 불자들을 위한 적절한 사업을 구상할 것"이라며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김백영 이사장은 1956년 경남 창원 출신으로 현재 부산불교법조인회 회장과 법무법인 삼덕 대표 변호사, 부산불교방송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김백영 이사장은 법조인의 경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 김백영 신임 이사장 취임법회

험을 살려 부산광역시불교신도회에서 체계적이면서도 투명한 운영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공생선원 개원 12주년을 맞이하기까지는 불보살님들의 가호하심과 신심 깊은 신도님들의 정성이 더한 결과입니다.

문수가 머무는 오대산 자락 새로운 터전 울전리 수행도량에서 선원 대중선원 대중 모두는 더 큰 서원으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는 불자님들께서 모두 오셔서 축하와 격려로 질책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공생선원 선원장 무라無翼 합장 -

공생선원 개원 12주년

덕승총림 수덕사 방장 설정큰스님 초청법회

한국 불교를 이끌어주시는 선지식의 높은 가르침 덕승산 수덕사의 가풍으로 참다운 수행자로 거듭날 수 있는 경책입니다.

모든 불자님을 초대합니다.

▶ 일시: 10월 5일(일) 오전 10시 30분

대한불교조계종
공생선원

☎ 02)900-2448 (4호선 쌍문역)
서울시 도봉구 쌍문2동 653번지 삼환프라자 7층